

제34회 전북 연극제 11일 팡파르... 도내 4개 극단 경연

무대 연기의 진가를 보여드리지요

제34회 전북연극제가 11일 개막을 시작으로 1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과 군산 사람세상 소극장에서 연극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연극제엔 4개 극단이 참가해 경연을 벌인다. 전북도지사상인 최우수작품상을 받는 작품은 6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0...극단 까치들은 조선 후기 3대 명필인 창암 이삼만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흐르는 물과 같이' (작·연출 정경선)로 관객들과 만난다.

극은 그 시절 전업 예술가로 치열하게 살았던 이상만 선생이 그 곁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오로지 예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왔던 그의 부인, 그리고 예도의 동반자였던 판소리명창 심녀와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는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오후 7시 30분 전당 명인홀.

0...13일에는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이 '할머니의 레시피' (원작 이미애/각색·연출 한우경)를 선보인다.

작품은 보통의 인자하고 자상한 이미지와 달리 남다른 표현으로 애정을 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담아낸다. 구박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잘 되라는 의미가, 또 많이 먹어라 하는 말에는 건강해야 한다는 바

람이, 아이쿠! 조심 좀 하지 하는 말에는 많이 아프지? 괜찮다. 괜찮다. 라는 할머니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화적으로 그려낸다.

*13일 오후 7시 30분 전당 명인홀.

0...극단 동지는 우리네 어머니의 인생을 조선간장에 빚낸 '기억을 담그다' (작·연출 문광수)를 15일 무대에 올린다.

극은 억척스레 살아온 애달픈 어머니의 삶은 어느덧 장물처럼 검게 곰 삭고, 온 가족에 대한 오롯한 사랑의 마음은 알뜰한 장맛으로 녹아져 내렸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씨간장을 둘러싸고 한바탕 벌어지는 소란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곱씹는다.

*15일 오후 7시 30분 전당 명인홀.

0...극단 사람세상은 '이웃집 살롱' (작 김란이·연출 최 균)을 13~14일 양일간 펼쳐 보인다.

작품은 이웃사촌으로 살고 있던 네 명의 여인들이 어느 날, 살롱 하나를 두고 서로 의심하게 되면서 싹트는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서로 좋을 때는 이웃사촌도 의종은 형제가 되지만, 서로의 이익과 갈등이 생길 때는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군산 사람세상 소극장.

/정해은 기자



제34회 전북연극제가 11일 개막을 시작으로 1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과 군산 사람세상 소극장에서 연극의 향연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북연극제 무대.

완주문화재단 예술배낭여행 27일까지 참여예술인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은 '예술배낭여행'의 참여 예술인을 27일까지 모집한다.

예술배낭여행은 국외예술명소를 탐방하고, 국제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레지던시, 해외연수 등의 참여를 지원하는 예술인성장 지원사업으로, 모집대상은 완주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 대상지는 대한민국 외 국가로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 등의 여행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자유 선정할 수 있다.

모집부서는 예술배낭여행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5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예술배낭여행에 선정된 참여예술인(팀)에게는 1인 기준 450만원, 1팀 기준 800만원 내외로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웹캐터링을 통해 여행, 답사의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며, 11월경 참여예술인들과 함께 준비부터 다녀온 이후까지 전 과정의 결과공유레이블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조건과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mail@wfca.or.kr) 제출하면 된다.

이상덕 상임이사는 "이번 예술배낭여행은 재단에서 처음 시도하는 국외교류지원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동시대 예술트렌드를 경험하고, 스스로 예술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내발적 동력이 되고자 한다"며 "다양한 국제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성장점을 자극하고,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다채로운 '전주음식', 모형으로 구현

전통문화전당, 모형 전시실 개관... 월별·제철·상차림 등 테마존 구성

세계가 인정한 맛의 고장 전주의 다양한 음식을 한자리에서 엿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들어선다.

전당은 전주를 대표하는 총 467점의 음식을 모형으로 제작해 전시하는 '전주음식 모형 전시실'을 3층 전시실(99.04㎡)에 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

총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된 전시실은 월별로 만들어 먹던 전주음식이야기, 제철 식재료로 만든 전주 일상음식이야기, 상차림으로 알아보는 전주음식이야기, 전주 대표향토음식 이야기로 각각 구성됐다.

전시실 개관을 위해 전당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학계와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제작목록과 재현방식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포괄적인 자문을 진행, 논의와 고증을 거쳐 지난해 8월 최종 467점의 모형 제작목록을 확정지었다.

특히 전주대표 향토음식으로 전주백반, 전주한정식, 전주페팍은 전주시 지정 음식 명



인들이 실물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모형제작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전주음식모형 제작 사업은 지난 2014년 4월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민속실에 전시됐던 전북지방 음식 모형을 보전 및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음식모형물 전시는 당시 박물관이 기존 민속실을 전북역사실로 그 기능을 전환하며 중단됐고, 2016년 5월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박물관으로 기증되며 전주음식을 모형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됐다. 이

를 안타깝게 생각한 음식 분야 관계 전문가들은 전주음식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릴 콘텐츠 보존의 필요성과 이를 재현하지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전시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사전 신청에 한해 음식문화 해설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당은 전시실과 같은 층에 있는 조리체험시설 '시루방'과 연계해 보고, 듣고, 체험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비빔밥 축제 등 각종 행사장에 '찾아가는 전주음식 모형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주음식의 지혜와 솜씨, 우수성도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병구 센터기획국장은 "전주음식모형 전시실 개관을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한 알찬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말했다.

/정해은 기자

드론으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드론 예술공연인 '꽃심, 나르샤'의 제작발표회가 지난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특설전시장에서 열렸다.

'꽃심, 나르샤'는 전주의 문화예술 콘텐츠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을 접목한 난버벌(비언어적) 퍼포먼스 뮤지컬.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특화 컬러핀댄스 육성 및 드론 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공연은 전주정신을 일컫는 '꽃심(대동·풍류·울골음·창신)'을 4개의 옴니버스로 엮어, 전통예술을 비롯한 홀로그램·프로젝션 맵핑 그리고 드론 기술 등을 녹여낸다.

풍류를 소재로 한 사계에선 전주 사계절의 멋과 맛을 춤과 홀로그램의 인터랙션 퍼포먼스로 펼쳐 보인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창신의 마음을 표현한 꽃심에서는 꽃심을 뿜내는 드론 모델과 패션모델의 런웨이로 새로운 재미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꽃심, 나르샤' 제작발표회

선사할 예정이다. 선비의 방은 울골은 선비정신을 드론과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그리고 절개 있는 군무로 구현한다.

대동을 표현할 난장에선 다 같이 하나 되는 마음을 신나는 DJ 음악공연과 함께 화려한 축제 한마당을 펼친다.

이번 제작발표회에 이어 정식공연은 오는 7월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1주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선보일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